

洪氏讀書錄의 目錄記述方式에 대한 考察

리 상 용*

목 차

- | | |
|----------------|--------------|
| 1. 序言 | 2.4 著者名表示 |
| 2. 洪氏讀書錄의 目錄記述 | 2.5 著作役割語表示 |
| 2.1 書名表示 | 2.6 複雑한 目錄記入 |
| 2.2 卷數表示 | 3. 結語 |
| 2.3 著作時代表示 | |

1. 序 言

洪氏讀書錄은 淵泉 洪奭周가 편찬한 분류순 解題目錄이다. 그가 편찬한 目錄類로는 이외에 분류순 誦讀目錄인 四部誦惟目錄이 또 하나 있다. 그런데 洪氏讀書錄은 그 수록된 著錄數 面에서는 중국의 四庫全書總目提要에 비길 만한 것이 못된다 할지라도, 書誌的 記述 面에서는 그에 비견할 만큼 잘 갖추어져 있는 목록이다. 그의 또 하나의 목록인 四部誦惟目錄은 그 目錄의 성격상, 때로는 書名만 기입하고 때로는 書名과 핵심 篇章만을 기입하여 書誌的 記述 面에서 볼 때 별로 논의의 거리가 못된다. 그러므로 본 논고에서는 淵泉의 目錄類 중 洪氏讀書錄만을 대상으로 하여, 거기에 나타난 書誌的 記述方式을 살펴보고자 한다.

淵泉 洪奭周는 1774년(英祖50年)에 태어나서 1842년(憲宗8年)에 생을 마친 조선조 후기의 大儒學者이며 大目錄學者이다. 그는 幼少年時節과 青年時節을 朝鮮朝 後期에 있어서 최고로 文藝가 隆盛하였던 時代에서 보냈으며 壯年과 老年 時節을 朝鮮朝가 정치, 경제, 문화적인 면에서 沒落期로 접어드는 時代에서 보냈다.

* 서울女子大學校, 德成女子大學校 文獻情報學科(圖書館學科) 講師
접수일자 : 1994. 9. 30.

淵泉의 생존 시기를 전후해서, 中國에서는 정치적 문화적으로 清代 최고의 安定과 極盛期에 놓여 있었으며, 考證學的 學風이 온 학계를 풍미하고 있었다. 目錄學的인 側面에서 보아도 四庫全書總目提要(1782年刊), 文淵閣書目(1786年刊), 禁書總目(1788年刊), 世善堂藏書目錄(1795年刊), 孫氏祠堂書目(1810年刊), 文瑞樓藏書目錄(1811年刊), 絳雲樓書目(1850年刊), 國史經籍志(1850年刊) 등 諸 目錄의 編纂事業과 더불어 清代 目錄學이 頂點을 이루었던 시기이다. 이같은 淸의 先進文物과 實用主義의 思想은 우리나라에도 거의 동시적으로 유입되어 당시의 士大夫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다음과 같은 書誌學的 著作의 產生은 이 사실을 잘 증좌해 준다. 淵泉의 생존시기 전후해서 나온 우리나라의 書誌學的 저작의 一般類로는 攷事新書 文藝門(1771), 增補 文獻備考 藝文考(1782) 등이 있으며; 目錄類로는 奎章總目(1781), 鏤板考(1796), 群書 標記(1799), 各道冊板目錄(1840) 등이 있다.

이같은 상황 아래에서, 全主題分野의 典籍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지닌 淵泉이 洪氏 讀書錄과 四部誦惟目錄을 편찬하게 된 것은, 그의 好書性 또는 典籍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의 절실한 時代的 要請 속에서 필연적으로 산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洪氏讀書錄은 淵泉이, 그의 나이 37세인 1810년(純祖10年)에, 자신이 젊은 시절에 너무 분별 없이 독서한 것을 뒤늦게 후회하고 그의 仲弟 沆(吉周)의 학문방향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洪氏門中의 後學들을 위해서 자신이 일찍이 읽어서 느낀 바가 있는 책과 읽고 싶었는데 미처 읽지 못한 책들을 분류하고 해제하여 편찬해 낸 것이다.¹⁾ 同 讀書錄에는 424種의 著錄이 수록되었는데, 이 중 韓國人著作은 61種이다.

洪氏讀書錄은, 각 類目的 序頭에 그 主題分野의 淵源과 性格을 설명하고 있는 類序를 갖춘 점, 著錄의 解題를 갖춘 점, 同一類目內에서 각 著錄을 著자의 先後學順 즉, 年代順으로 배열한 점 등 전체적인 체제는 四庫全書簡明目錄과 유사하지만, 그 分類體系와 目錄記入法과 解題의 內容과 표현은 四庫全書總目提要나 그의 簡明目錄의 것과 다른 바 커서 세부적인 면에서는 特異點과 獨創性이 많은 저작이다.

이 글에서는 淵泉이 편찬한 洪氏讀書錄을 대상으로 하여, 그의 目錄記述方式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李尙鏞, 洪氏讀書錄의 分類體系와 目錄記入法에 대한 研究, 1987,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7-18.

2. 洪氏讀書錄의 目錄記述

洪氏讀書錄의 각 著錄의 記入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目錄記入法인 書名主記入法을 취하여 다음에 보이는 저록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例:

通典二百卷 唐杜佑之所作也 其目有八 曰食貨 曰選舉 曰職官 曰禮
曰樂 曰兵刑 曰州郡 曰邊防 上溯黃虞 下暨唐玄 凡有繫於典章文獻治國之用者
靡有遺脫 後世言稽古者 稱三通 然通志不足論已 雖通考 亦不能及也

상기 例를 분석하면, ‘通典’은 書名을, ‘二百卷’은 卷數를, ‘唐’은 著作時代를, ‘杜佑’는 著者名을, ‘之所作也’는 著作役割語를, ‘其目有八 曰食貨 … 雖通考 亦不能及也’는 解題를 각각 가리킨다. 즉, 洪氏讀書錄의 각 著錄의 記述 要素는 대체로 書名, 卷數, 著作時代, 著者名, 著作役割語 및 解題이며, 위에 적힌 順序대로 기술되어 있다.

본 논고에서는 이들 書誌的 記述 事項 중에서 마지막 사항인 解題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요소들의 目錄記述方式과 그 特徵을 살펴보고자 한다.

2.1 書名表示

洪氏讀書錄에서는 書名記述에 있어 御定書 내지 欽定書에 대해 ‘御定’이나 ‘欽定’이란 冠題를 書名 앞에 일체 冠記하지 않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書名記述에 있어서 그 외의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다.

例:

康熙字典四十二卷 清張玉書等所修也
禮記義疏八十二卷 清乾隆中所輯也

2.2 卷數表示

卷數는 書誌的 卷數를 말하는 것으로 卷數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그 未知의 자리를

빈칸으로 한 字 내지 두세 字 띄어놓고 單位名 ‘卷’ 字만 표시하고 있다.

例:

卷數表示가 있는 경우: 東觀奏記三卷 唐裴庭裕之所作也

卷數表示가 없는 경우: 朝野僉載 卷 尹衡聖之所作也

2.3 著作時代表示

著作時代는 일반적으로 歷朝를 單位로 表示하고 있다(例 가). 그러나 著者未詳書로서 著者表示 없이 著作時代만 表示한 경우는 그 歷朝名과 더불어 廟號 또는 年號로 그 時期를 좁혀 표시하는 수도 있다(例 나).

例:

가) 著者名 앞에 著作時代를 표시한 경우:

樂學軌範 卷 本朝成倪之所作也

方言十三卷 漢楊雄之所作也

나) 著者表示 없이 著作時代만 표시한 경우:

大明律八卷 太祖古皇帝時所修也

唐六典三十卷 玄宗時所修也

春秋傳說彙纂三十八卷 清康熙中所輯也

六韜六卷 蓋六朝以後書也

이 著作의 時代, 즉 歷朝名의 表示는 同一類目(分類項目) 내에서 時代가 바뀔 때에만 그 첫 著錄에 한해서 표시하고 두번째 이하의 著錄에 대해서는 그 表示를 생략하고 있다.

例:

經部 樂門에서의 경우:

樂書二百卷 宋陳暘之所作也

律呂新書二卷 蔡元定之所作也

律呂正義 五卷 清康熙中所撰也

이와 같이 각 著錄에서 著作의 時代表示를 한 것은 同一 主題項目內에서 각 著錄(著作)을 時代 즉, 年代의 順으로 排列하여 독자로 하여금 年代別 검색과 著者의 식별을 돕기 위한 배려로 보인다.

2.4 著者名表示

著者名은 上記 例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著者의 姓 + 實名으로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간혹 號나 諡號 + 姓名, 姓 + 號나 諡號 + 名, 號나 諡號 + 姓 + 先生 + 名, 姓 + 官職名 + 名, 姓 + 先生 + 名, 號 + 姓 + 子, 姓 + 氏 등의 형식으로 표시한 것도 있다.

例:

號나 諡號 + 姓名 :

東賢奏議 卷 本朝文簡公李喜朝之所編也

姓 + 號나 諡號 + 名 :

書儀十卷 司馬文正公光之所作也

號나 諡號 + 姓 + 先生 + 名 :

喪禮備要一卷 本朝申義慶所作

沙溪金先生長生所訂定也

姓 + 官職名 + 名 :

懲愆錄 卷 柳相國成龍之所作也

姓 + 先生 + 名 :

擊蒙要訣一卷 亦李先生珥所作也

號 + 姓 + 子 :

程氏易傳四卷 宋伊川程子之所作也

姓 + 氏 :

論語註疏二十卷

孔氏之遺書而魏何晏註宋邢昺疏也

婦女子의 著者名은 夫君의 姓氏를 적은 다음에 ‘婦’ 字를 적고 그녀의 이름(名)을 기입한 경우도 있고, 그냥 ‘節婦’ 등의 語句를 적은 다음 그녀의 姓氏만 기입한 것도 있다. 皇后의 경우는 ‘歷朝名 + 諡號 + 皇后’의 형식으로 기입하고 있다.

例:

가) 一般 婦女子의 경우:

女誡一卷 漢曹氏婦班昭之所作也

女範一卷 節婦王氏之所作也

나) 皇后의 경우:

內訓一卷 皇明仁孝文皇后之所作也

우리나라 命纂書는 일반적으로 ‘命諸臣 + 著作役割語’의 형식으로 기입하고 있다.

例:

訓民正音一卷 本朝 世宗朝命諸臣所撰也

國朝寶鑑 十卷 正宗朝命諸臣所編也

著者名은 未詳이나 그 著作時代를 아는 것은 著者名 대신 어떤 時代人의 것이라고 記入한 것들도 있다.

例:

示我周行集六卷 清康熙中人所作也

東觀漢紀二十四卷 後漢人所修也

戰國策十卷 蓋秦漢間人所作也

위의 例와 같이 ‘時代名 + 人’의 형식으로 著者表示를 한 것은 著作時代表示와 著者名表示를 複合한 形式이라고 볼 수 있겠다.

著者名을 밝히지 못한 것은 그 表示를 전혀하지 않고 그 자리를 빈칸으로 두세 자 띄어 놓은 것도 있으며,

例:

燃藜室記述 卷 之所作也
 朝野會通 卷 之所作也
 國朝編年 卷 之所作也

著者名表示 자리에 發行處(刊者)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을 記述해 놓은 것도 있다.

例:

東國地圖 卷 內閣所藏也
 救荒撮要一卷 本朝所頒也

이와 같은 표현은 아마도 그 圖書가 官撰書 또는 團體著作物의 경우에 쓰인 것이 아닌가 해석된다.

2.5 著作役割語表示

著作役割語는 四庫全書總目提要나 그의 簡明目錄 등 다른 書目에서 著者名 다음에 '撰', '編' 등을 기술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所作也', '所編也' 식의 敘述的 文章形態로 적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例:

法言十卷 楊雄之所作也
 小學五卷 朱子之所編也
 (이제까지의 모든 例 참조)

그런데, 集部의 別集(個人文集)의 경우에는 著者名 다음에 '之文也', '之詩也'로 記述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例:

李太白集三十卷 李白之文也
精華錄十卷 清王士禛之詩也

洪氏讀書錄에서 語助辭 ‘所’字와 ‘也’字 사이에 쓰인 本著作役割語는 26種이 있는데 이를 類別로 살펴보면 著述의인 것으로는 作, 記, 錄, 語, 論述, 授의 6種 ; 編纂의인 것으로는 編, 撰, 撰次, 纂次, 敍次, 輯, 集, 修, 刪定의 9種 ; 註釋의인 것으로는 傳, 傳述, 箋, 注, 註, 解의 6種 ; 校定の인 것으로는 訂定, 定의 2種 ; 發行的인 것으로는 藏, 頒의 2種 ; 翻譯의인 것으로는 譯 1種이 각각 있다.

例:

律呂新書二卷 蔡元定之所作也
律呂正義五卷 清康熙中所撰也
訓民正音一卷 本朝世宗朝命諸臣所撰也
中庸大全一卷 皇明胡廣等所輯也
春秋左氏傳註疏三十六卷 周左丘明傳晉杜預註唐孔穎達所疏也
喪禮備要一卷 本朝申義慶所作沙溪金先生所訂定也
救荒撮要一卷 本朝所頒也
幾何原本六卷 徐光啓之所譯也

2.6 複雑한 目錄記入

다음은 類型別로 複雑한 目錄記入例를 들어 봄으로서 上述한 것 외에 洪氏讀書錄의 目錄記入法의 特徵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2.6.1 共著者表示의 記入例

1. 두 사람의 경우

數人의 共著者의 著者表示는 두 저자의 이름 사이에 ‘與’ 또는 ‘擘’字를 삽입하여 두 著者名을 연결시키는 記入方式을 취하고 있다.

例:

皇帝素問二十四卷 軒輅氏與岐伯相問答之語蓋後人所傳述也
近思錄十四卷 朱子覽呂東萊祖謙所輯也

2. 세 사람 이상의 경우

세 사람 이상의 共著者의 著者表示는 代表著者의 이름을 하나 내지 두개 적고 그 다음에 ‘等 + 著作役割語’ 또는 ‘徒 + 著作役割語’ 라고 표시하고 있다.

例:

明史三百六十卷 清張延玉等之所修也
墨子十五卷 周墨翟之徒所作也
歷代名臣奏議三百五十卷 皇明黃淮楊士奇等所編也

3. 對談書의 경우

對談書의 著者表示는 對談者의 이름 사이에 ‘對’字를 적고 그 말미에 ‘之語也’란 著作役割語를 표시하고 있다.

例:

李衛公問對三卷 唐李靖對太宗之語也

2.6.2 著作役割이 다른 두 種 이상의 著者表示

著作役割이 다른 著者表示가 두 種 이상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主된 役割의 것을 먼저 적고 副次的 役割의 것을 뒤에 적고 있는데, 때로 役割이 다른 著者表示 사이에 ‘而’字를 삽입한 것도 있다.

例:

가) 著作役割이 큰 것을 먼저 적은 경우

周易註疏十卷 晉王弼韓伯所註唐孔穎達所疏也
孝經註疏三卷 唐玄宗皇帝御註宋邢昺所疏也

나) 役割이 다른 著者表示 사이에 '而' 字를 삽입한 경우

朱子語類二百四十卷 朱子門人所記而黎靖德所敘次也

2.6.3 同一類目에서 同一著者の 獨立된 두 개 이상의 著作이 한꺼번에 解題되었을
경우의 目錄記入

同一著者の 獨立된 著作이 同一類目내에 두 개 이상 있는 것으로 그의 解題를 한꺼번에 한 것은 먼저 각 저작의 書名과 卷數를 다 열기한 그 다음에 皆 字를 冠記하여 著者表示를 하고 있다.

例:

周易觀象十二卷周易通論四卷 皆清李光地之所作也

內外傷辨惑論三卷脾胃論三卷蘭室祕藏六卷 皆李 杲之所作也

格致餘論一卷局方發揮一卷金 匱 鉤 玄 三卷本艸補遺三卷

皆元朱震亨之所作也

上記 例와 같이 同一著者の 여러 著作을 한 著錄內에 한 덩어리로 列記한 것은 동일 分類項目(主題) 내에서 同一한 著者の 著作들을 함께 모아 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3. 結 語

이 論文은 洪氏讀書錄에 나타난 目錄記述方式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洪氏讀書錄의 目錄記入法은 書名主記入法을 취하여 대체로 書名, 卷數, 著作時代, 著者名, 著作役割語 그리고 解題의 순으로 記入하였는데, 著作時代表示는 同一分類項目 내에서 時代(歷朝)가 바뀔 때마다 그 첫 著者에 한해서 표시하고 있다.

卷數는 書誌的 卷數를 말하는 것으로 卷數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그 未知의 자리를 빈칸으로 한 字 내지 두세 字 띄어놓고 單位名 '卷' 字만 표시하고 있다.

著作時代表示는 일반적으로 同一類目(分類項目) 내에서 時代가 바뀔 때에만 그 첫

著錄에 한해서 표시하고 있는데 著者未詳 또는 中國官撰書의 경우에는 그 歷朝名과 더불어 廟號 또는 年號로 그 時期를 좁혀 표시하고 있는 수도 있다. 이 著作時代表示는 동일 類目에서 각 著錄의 時代順 排列의 눈금 역할을 하고 있다.

著者名表示는 일반적으로 著者の 姓 + 實名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간혹 號나 諡號 + 姓名, 姓 + 號나 諡號 + 名, 號나 諡號 + 姓 + 先生 + 名, 姓 + 官職名 + 名, 姓 + 先生 + 名, 號 + 姓 + 子, 姓 + 氏 등의 형식으로 표시한 것도 있다. 婦女子의 著者名은 夫君의 姓氏를 적은 다음에 ‘婦’字를 적고 그녀의 이름(名)을 기입하거나 그냥 節婦 등의 語句를 적은 다음 그녀의 姓氏만 기입한 것도 있다. 우리나라 命箋書는 일반적으로 ‘命諸臣 + 著作役割語’의 형식으로 기입하고 있으며, 著者名을 밝히지 못한 것은 그 자리를 빈칸으로 두 세 자 띄어 놓은 것도 있으며, 著者名表示자리에 發行處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記述해 놓은 것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官撰書나 團體刊行物에 적용되는 記述方式으로 보인다.

著作役割語表示는 四庫全書總目提要나 그의 簡明目錄 등 다른 書目에서 著者名 다음에 ‘撰’, ‘編’ 등을 기술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所作也’, ‘所編也’ 식의 敘述的文章形態로 적고 있는 것이 특이한데, 集部의 別集(個人文集)의 경우에는 著者名 다음에 ‘之文也’, ‘之詩也’로 記述하고 있는 것은 더욱 특이하다.

複雜한 目錄記入例에서는 1) 共著者表示의 記入例, 2) 著作役割이 다른 두 種 이상의 著者表示, 3) 同一類目에서 同一著者の 獨立된 두 개 이상의 著作이 한꺼번에 解題되었을 경우의 目錄記入例의 세 가지로 대별하여 살펴보았다.

1) 共著者表示의 記入例에서 두 사람의 경우에는 두 저자의 이름 사이에 ‘與’ 또는 ‘擘’字를 삽입하여 記述하고 있으며, 세 사람 이상의 경우에는 代表著者の 이름을 하나 내지 두개 적고 그 다음에 ‘等 + 著作役割語’ 또는 ‘徒 + 著作役割語’라고 표시하고 있다. 2) 著作役割이 다른 두 種 이상의 著者表示에서는 일반적으로 主된 役割의 것을 먼저 적고 副次的 役割의 것을 뒤에 적고 있는데, 때로 役割이 다른 著者表示 사이에 ‘而’字를 삽입한 것도 있다. 3) 同一類目에서 同一著者の 獨立된 두 개 이상의 著作이 한꺼번에 解題되었을 경우에는 먼저 각 저작의 書名과 卷數를 다 열기한 다음에 ‘皆’字를 冠記하여 著者表示를 하고 있다.

參考文獻

1. 原典類

洪奭周, 洪氏讀書錄, 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 想白文庫所藏 單行本 ; 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 一蓼文庫所藏 單行本 ; 延世大學校 中央圖書館 所藏의 淵泉先生文集, 卷40 ; 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 一般古書集書本の 淵泉先生文集, 卷40 ; 旴晨社의 影印本 淵泉全書 冊6內.

欽定四庫全書簡明目錄, 永瑨等 撰, 文淵閣原 鈔本影印, 臺北 : 臺灣商務印書館, 1983.

欽定四庫全書總目提要, 永瑨等 撰, 武英本影印, 臺北 : 臺灣商務印書館, 中華民國 72(1983).

2. 論著

金尙基, 淵泉家學과 韓氏文庫, 서울, 1978,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李尙鏞, 洪氏讀書錄의 分類體系와 目錄記入法에 대한 研究, 서울, 1987,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李尙鏞, “四部誦惟目錄”에 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第25輯(1993.12), pp.445-476.

李載喆, “韓國書誌目錄學史의 一 研究”, 省谷論叢, 第7輯(1976), pp.580-598 (第7章 洪氏讀書錄의 分類體系)

ABSTRACT

An analysis on the bibliographical description of the Hong-ssi Tok-so-rok(洪氏讀書錄)

Sang-Yong Lee*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background and circumstances of the bibliographical description method appearing in the Hong-ssi Tok-so-rok, or an annotated classified bibliography of Korean and Chinese books edited for the Hongs and their clan.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Each entries of the bibliography are entered under titles, and generally followed by bibliographic elements of volumes, written age, author's name, functional word of authorship, and annotation.

The written age is stated by the dynasty name for the first authors within each classes. However some anonymous works and government compiled works are recorded the king's shrine name or the reign title.

Entries of the bibliography are arranged by the chronological order in each classes.

The writer's name is generally described by 'surname + given name'. However it is sometimes also recorded in the one of the following forms:

Appellation(hao, 號) or posthumous title + surname + given name.

Surname + appellation or posthumous title + given name.

Appellation((hao, 號) or posthumous title + surname + Sonsaeng
(先生) + given name.

Surname + government position title + given name.

Appellation(hao, 號) + surname + cha(子, master).

surname + ssi(氏).

ect.

* Lecturer,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Duksung Women's University, and Seoul Women's University.

Married women's names are stated by her husband's surname followed by the Chinese character 婦 or 節婦 which signifies wife or virtuous woman, and then her given name. The works written or compiled by King's order(命纂書) are generally described in the form of 命諸臣 + functional word of authorship. Names of government agencies are occasionally stated as the authors' for the government publications or government compiled works.

The functional words of authorship are described in the phrase of 所作也, 所編也 instead of 著, 纂, ect. It is more noticeable that in the case of the collections of individual writers' works the wording of 之文也, 之詩也 is written after the name of the author.

More complicated descriptive forms are seen in the entries of works for the shared authorship and mixed responsibility.

Two or more than two monographic works of the same author classed in the same class are annotated all together.